

184회 임시중앙종회 폐회



지난 6일 열린 제184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승려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출연에 관한 내용에 대해 의원 스님들이 표결하는 모습.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사후재산 종단 출연...승려법 개정안 만장일치

조선의원 스님들 의정비 모아 아름다운동행에 기탁 ‘훈훈’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가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84회 임시종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로써 제14대 중앙종회는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28일 선출되는 제15대 중앙종회에 소임을 넘기게 된다. 이번 임시종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내용을 담은 승려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승려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계종 승려는 사망 또는 환속했을 경우 종단이 개인 명의의 재산을 출연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 ‘환속’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종회의원 대부분의 반대로 포함시켰다. 승려법 개정안의 통과로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명시한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각종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된다. 분한 신고시, 구족계 및 사미·사미니계 수계시, 각급 고시 응시 시, 각급 법계 품수시, 주지 품신 시에 유언장을 제출하도록 했다. 중앙종회의원 지흥·지원·주경·성정스님 등이 유언장 제출 대상에 예비승려를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표결 결과 포함시키기로 했다.

종회의원 보인스님은 “신도들에게 설법을 할 때 보시하라고 한다”면서 “출가자라면 가까이 회사(喜捨)하는 것이 출가 정신에 맞다”고 지적했다. 종회의원 학답스님은 승려법 개정안 제30조에 환속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환속을 개정안에서 뺄 경우 삼보정재를 갖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총무부장 영답스님은 올해 분한신고 결과를 묻는 질의에 대해 “1만4천여 명의 종단 승려 가운데 1만2천여 명이 분한신고를 했다”면서 “10년 전 분한신고보다 신고율이 높다”고 밝혔다.

○... 호계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등 다수의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 거주승 삭제 내용에 대해선 제15대 회기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중앙선관위의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자격심사 권한을 법제화했다. 무효표 및 유효표 처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했으며,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등록기간을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과 같게 규정했다.

▲호계원법 개정안 =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했다. 심판부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심리의 신속성을 보장했다. 특별심 절차를 규정해서 예전에 호계원에서 판단한 사항 중에서 명백히 정의에 반하는 판결은 재심호계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불교사회진흥법 개정안 = 종단의 사회활동과 불교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 종단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업무의 범위를 규정해 불교 사회활동화 취지를 담았다. 불교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이밖에도 신도법 개정안과 종단 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 개정안, 예산회계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종단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은 신도 교무금 조정위원회에 포교사단장을 포함시

키기로 했다. 예산회계법 개정안은 중앙종무기관에서는 특정한 목적 사업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종단 보조금, 각종 성금, 회사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제14대 중앙종회 조선의원 스님들이 의정비와 여비 등을 모아 아름다운동행에 기증했다. 지난 6일 오후5시 제184회 임시종회가 폐회된 직후 조선의원 스님들은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있는 아름다운동행 법인 사무국을 방문해 기금을 전달했다. 조선의원 스님들은 아름다운동행 이사 혜경스님(총무원 사무부장)에게 591만8010원을 전달했다. 기금을 전달하는 자리에는 조선의원을 대표해 범해·진화·정범·성정스님이 참석했다.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의원 스님들이 전해주시는 기금은 좋은 곳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원칙 지키며 소임 보려고 최선”

33대 집행부 첫 호법부장서 물러난 덕문스님

“종단이 여러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33대 총무원 집행부의 첫 호법부장에서 물러난 덕문스님(사진)은 지난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퇴임 소감을 밝혔다. 덕문스님은 “그동안 원칙주의자 입장에서 소임을 보기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단 1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욕을 갖고 추진하던 ‘양형기 준집’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덕문스님은 제184회 임시종회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덕문스님은 “종단이 이제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불교와 종단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덕문스님은 “새롭게 부장소임을 맡은 상운스님을 중심으로 호법부가 종단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6일 이재오 특임장관의 예방을 받고 장관 취임을 축하하며 환담을 나눴다. 이 특임장관은 90도 가까이 허리를 숙여 총무원장 스님에게 인사를 올렸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총무원장 스님 “허리를 너무 숙여 다칠까 걱정”

이재오 특임장관 총무원 예방

총무원장 스님 유머에 ‘웃음꽃’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었다. 90

도 가까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특임장관에게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허리를 너무 깊이 숙여 허리를 다칠까”면서 “장관님은 허리를 조심해야 겠다”고 유머를 던져 웃음꽃이 피기도 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취임을 축하드린다. 특임장관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다”고 말을 건네자, 이재오 장관은 “심부름을 하기 위해 바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재오 장관의 예방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원답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 김해진 특임차관, 박기연 정책특보 등이 배석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본·말사 주지인사
 (9월 2일~6일 총무회의의 결과)

혜초스님 서울 사자암			
종민스님 서울 불국사	재안스님 철원 안양사	범귀스님 김포 문수사	각운스님 고양 원종암
선웅스님 서울 자문암	광전스님 인천 용궁사	정광스님 구미 죽장사	삼성스님 익산 법서사
성일스님 남양주 흥국사	동준스님 예산 화엄사	학명스님 하남 성불사	효상스님 대구 선종사
종우스님 경주 분황사	덕화스님 포항 문수사	혜승스님 경주 천주암	기연스님 영주 흑석사

대승보살의 서원과 실천으로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선종 제1회 수좌대회(1931년 3월 14일).

한국의 청정 전통 선맥을 계승합니다.

선의 현대적 계승을 통해 21세기 정신문명을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임직원 일동

재단법인 선학원

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전화 (02) 734-9654~6 | 전송 (02) 734-3410